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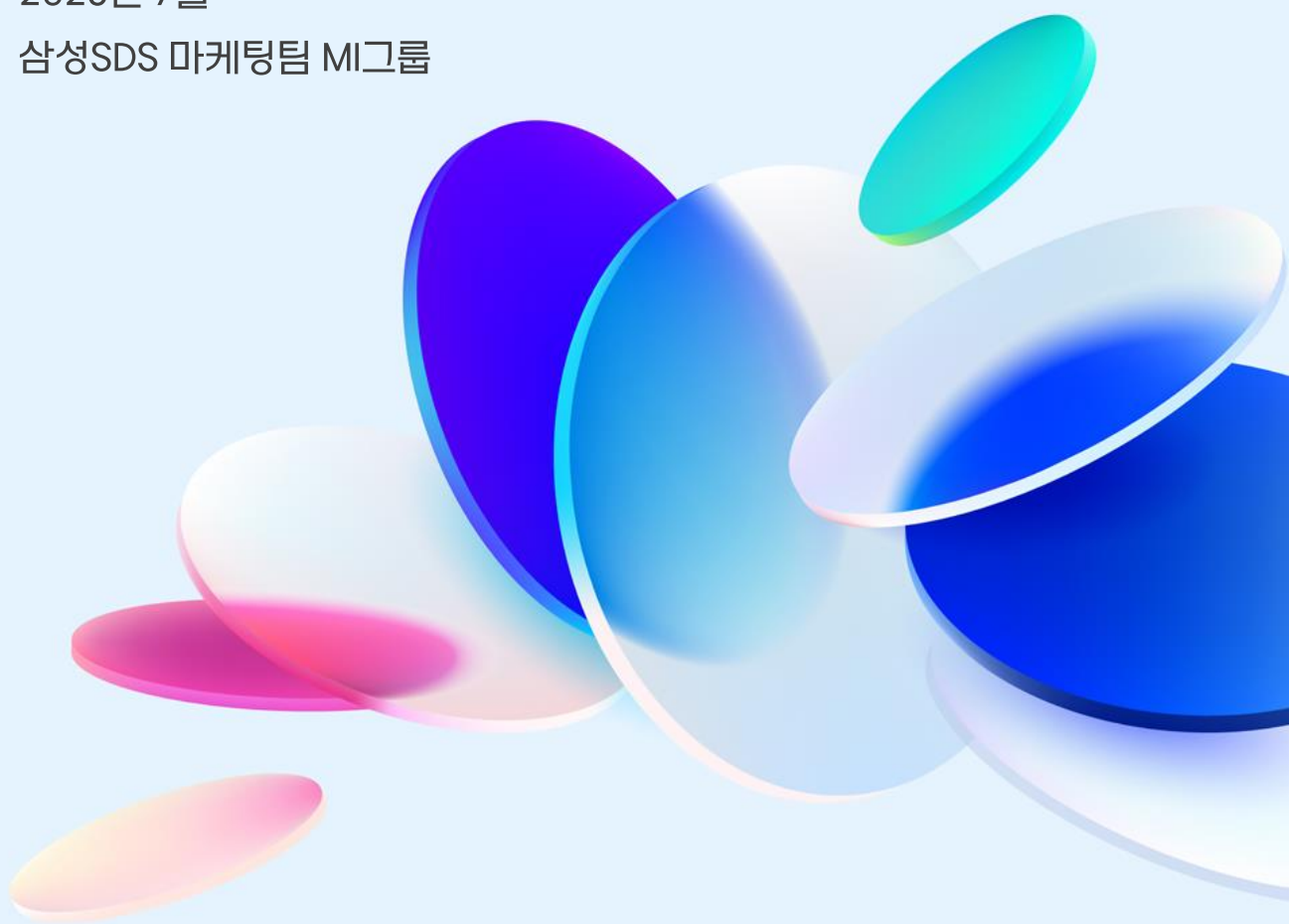
2025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현황 보고서

: AI 시대, 클라우드는 어떻게 진화하는가

일반 업종(제조, 금융, 리테일, 서비스)

2025년 7월

삼성SDS 마케팅팀 MI그룹



2025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현황 보고서

: AI 시대, 클라우드는 어떻게 진화하는가

Introduction

생성형 AI의 급속한 확산은 클라우드 인프라를 자연스럽게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AI 모델 운영을 위한 Hyperscaler¹ 클라우드(AWS, Azure)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으며, Flexera의 2025 클라우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절반 이상이 이미 생성형 AI를 도입했고, 그 대부분이 클라우드 기반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².

이처럼 AI 워크로드의 증가와 함께,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단순한 기술 채택을 넘어 ‘AI 네이티브 환경 구축’이라는 전략적 전환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Rackspace Technology의 2025년 조사에서는 90% 이상의 IT 리더들이 클라우드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였으며, 48%는 향후 1~2년 내 하이브리드/멀티 클라우드 환경 구축이 ‘핵심 과제’라고 응답했습니다³. 이는 AI와 클라우드의 상호 의존도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은 퍼블릭 클라우드 도입을 결정할 때, 어떤 기준과 우려를 가지고 도입을 검토하고 있을까요? 클라우드 전략은 업종이나 직무, 직급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을까요?

삼성SDS는 이러한 시장 흐름과 기업들의 인식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국내 중견 및 대기업 재직자 1,200명을 대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인식, 실제 도입 현황, 선택 기준, 그리고 도입 시 어려운 점 등을 폭넓게 조사했습니다.

이번 리포트는 지금까지 업계에서 공유되던 막연한 내용을 정량적 데이터로 검증하고, 퍼블릭 클라우드 도입과 관련된 기업 내부의 실제 의사결정 기준과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도입이나 전략 전환을 고민 중이라면, 이 리포트가 방향 설정에 실질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¹ Hyperscaler는 대규모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기 위해 방대한 인프라가 필요한 조직에 클라우드 컴퓨팅 및 데이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² “State of the Cloud Report”, Flexera, 2025년 3월.
https://info.flexera.com/CM-REPORT-State-of-the-Cloud?lead_source=Organic%20Search

³ “The 2025 State of Cloud Report”, Rackspace Technology, 2025년 1월.
<https://www.rackspace.com/lp/2025-state-cloud-report>

Executive Summary



퍼블릭 클라우드 도입,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 중

이번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6%가 이미 퍼블릭 클라우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별로는 리테일(73%), 서비스(71%), 제조(65%) 분야에서 높은 도입률을 보였고, 금융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은 55%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아직 도입하지 않은 기업들 중 절반 이상이 도입 의향을 밝히고 있어, 향후 확산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는 특정 산업군의 전유물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비즈니스 경쟁력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멀티 클라우드 전략, 최적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잡다

퍼블릭 클라우드를 도입한 기업 중 58%는 두 개 이상의 서비스를 함께 사용하는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유는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함이며, 특정 업체 종속을 피하려는 목적도 큼니다. 금융, 리테일 산업군에서 특히 멀티 클라우드 사용 비중이 높았고,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단일 벤더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처럼 산업과 규모를 막론하고, 클라우드 최적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선택과 도입, 고객이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은 '가격·보안·유연성', 가장 큰 걸림돌은 '비용과 보안'

기업들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가격 경쟁력'(45%)과 '강력한 보안'(39%)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가 기업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에서는 뛰어난 기능이나 성능과 더불어 신뢰할 수 있는 보안 역량과 업종에 대한 이해, 전문성 있는 파트너십을 업체가 갖추어야 하는 핵심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아직 클라우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도입을 망설이는 이유 역시 '외부 저장에 대한 보안 우려'(44%)와 '비용 부담'(38%)이 가장 많이 지목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기술지원 부족',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 연계에 대한 우려' 등 복합적인 현실적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 기능이나 성능 제안만으로는 부족하며, 기업의 내부 의사결정 구조와 우려 포인트를 고려한 맞춤형 접근과 신뢰 구축이 필수적임을 시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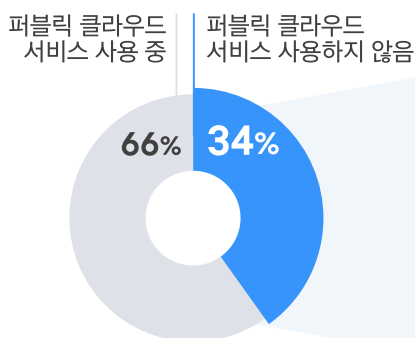
퍼블릭 클라우드 도입은 국내 중견·대기업 전반으로 확산 중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6%가 퍼블릭 클라우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도입하지 않은 기업 중에서도 절반 이상(58%)은 도입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리테일(73%), 서비스(71%) 산업에서 평균 이상의 도입률을 보인 반면, 금융은 55%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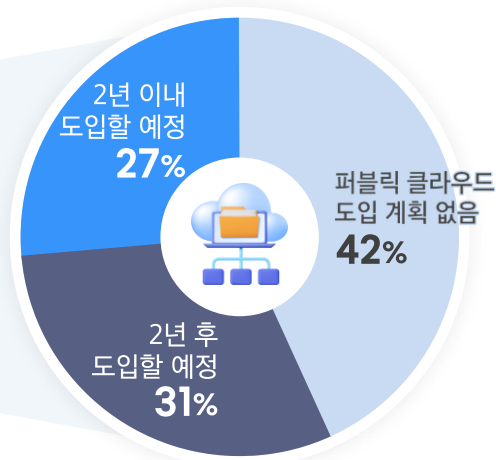
도입하지 않은 기업 중에서 27%는 2년 이내 도입 예정이라고 답해 앞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확산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 분야는 아직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이지만, 최근 국내 주요 금융기관들도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은 2025년 초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전담하는 코어 बैं킹 시스템 일부를 클라우드로 이전한다고 발표했으며, 하나은행은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클라우드 인프라 확대와 보안 강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특성과 규제 환경에 따라 도입 시기는 상이하지만, 전 산업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전략적으로 고려하는 흐름은 분명히 확인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도입 현황



(미도입 기업)

향후 퍼블릭 클라우드 도입 계획



퍼블릭 클라우드 도입율(산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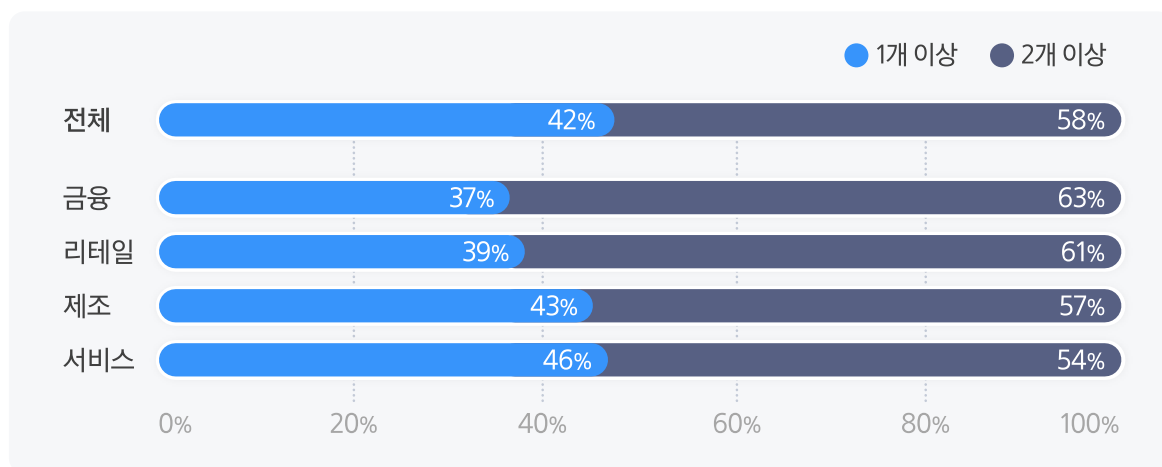
멀티 클라우드 도입, 최적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



퍼블릭 클라우드를 도입한 기업 중 얼마나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를 도입한 기업 중 58%는 두 개 이상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함께 사용하는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운영 중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산업별로는 금융(63%), 리테일(61%) 분야에서 특히 멀티 클라우드 비중이 높았으며,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단일 클라우드 사용률이 높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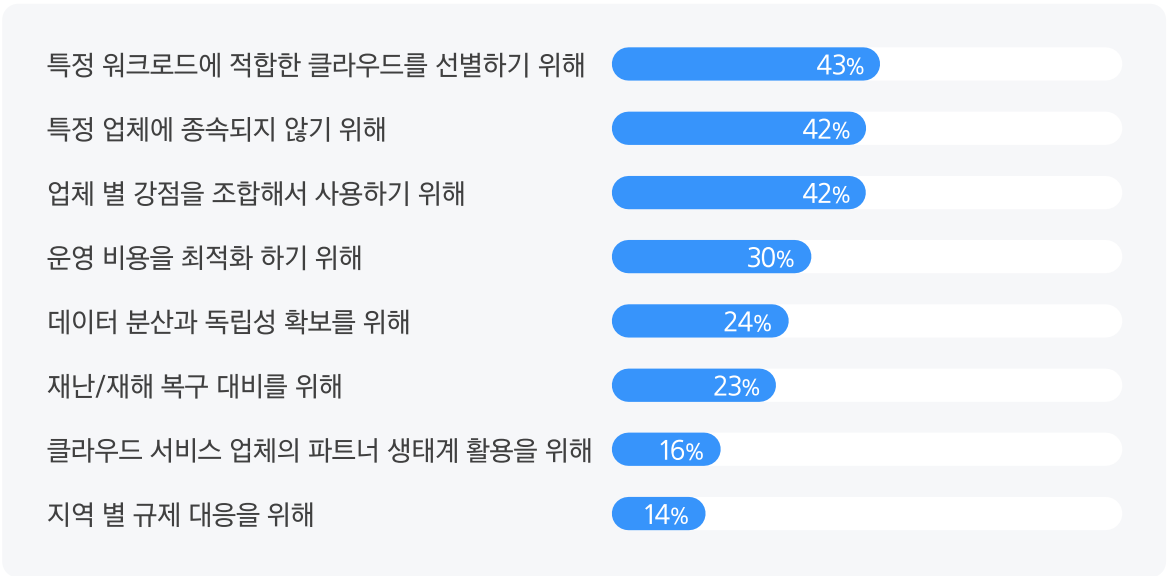
실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업체는 AWS와 Microsoft Azure(16%), 그 다음으로 AWS와 Google Cloud(5%)였으며, AWS와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인 NAVER Cloud도 함께 사용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용 중인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개수(%)



기업이 멀티 클라우드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특정 워크로드에 적합한 퍼블릭 클라우드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43%)이며, 특정 업체에 종속되지 않기 위한 전략(42%), 다양한 업체의 강점을 조합하려는 시도(42%)도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운영비용 최적화(30%), 데이터 분산과 독립성 확보(24%) 및 재해 복구 대비(23%) 등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은 단순히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것을 넘어, 점점 더 전략적으로 ‘고도화’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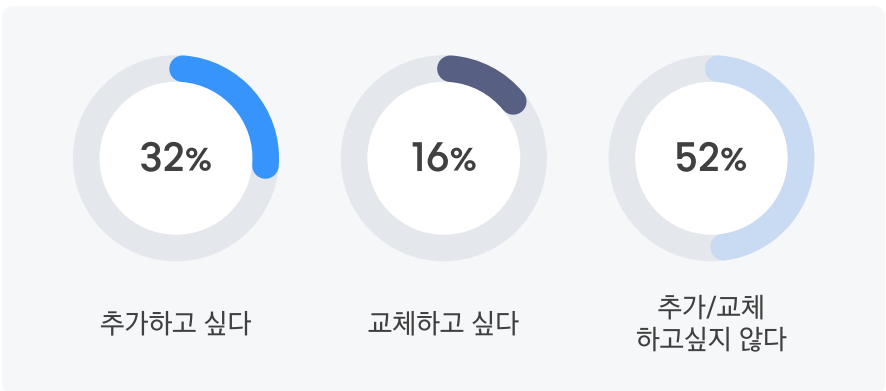
멀티 클라우드 전략 채택 이유



현재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들 사이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단일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업 중 약 48%는 1년 이내에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기존 클라우드를 다른 서비스로 교체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추가 도입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32%, ‘교체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16%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단일 클라우드 전략에 머물러 있던 기업들조차, 클라우드 구축을 최적화하려는 시도를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산업 별로 보면 서비스(33%)와 제조(33%) 산업군에서 특히 ‘추가 도입 의향’이 높아 멀티 클라우드로의 전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하나의 퍼블릭 클라우드 벤더에 의존하지 않고, 유연하고 최적화된 조합을 찾는 데 점점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추가/교체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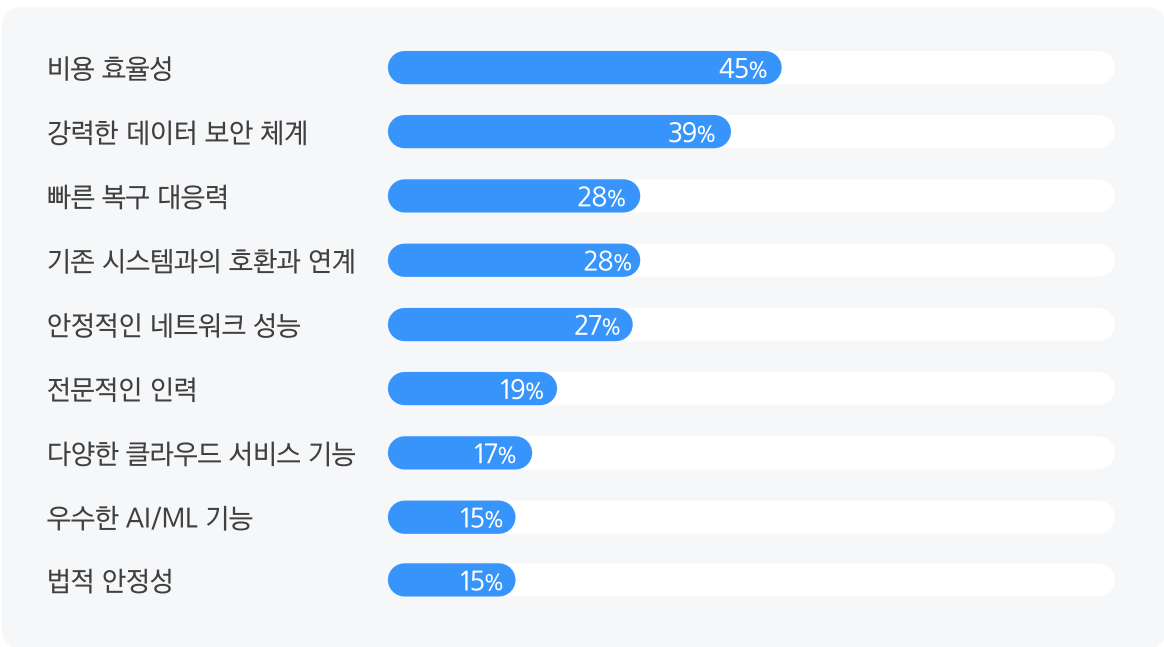
클라우드 선택과 도입, 고객이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은 ‘가격·보안·유연성’, 가장 큰 걸림돌은 ‘비용과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성’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를 선택할 때 기업들은 ‘비용 효율성(45%)’과 ‘강력한 데이터 보안 체계(39%)’를 가장 핵심적인 선택 기준으로 꼽았습니다. 이 외에도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과 연계(28%)’, ‘빠른 복구 대응력(28%)’, ‘안정적인 네트워크 성능(27%)’도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업종 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융에서는 법적 안정성이 특히 더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었고, 리테일 업계에서는 네트워크 속도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기준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이는 산업의 특성과 기업의 기술 인프라 환경이 클라우드 서비스 선택 기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 선정 시 핵심 기능 요소



(산업별) Top 3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 선정 시 핵심 기능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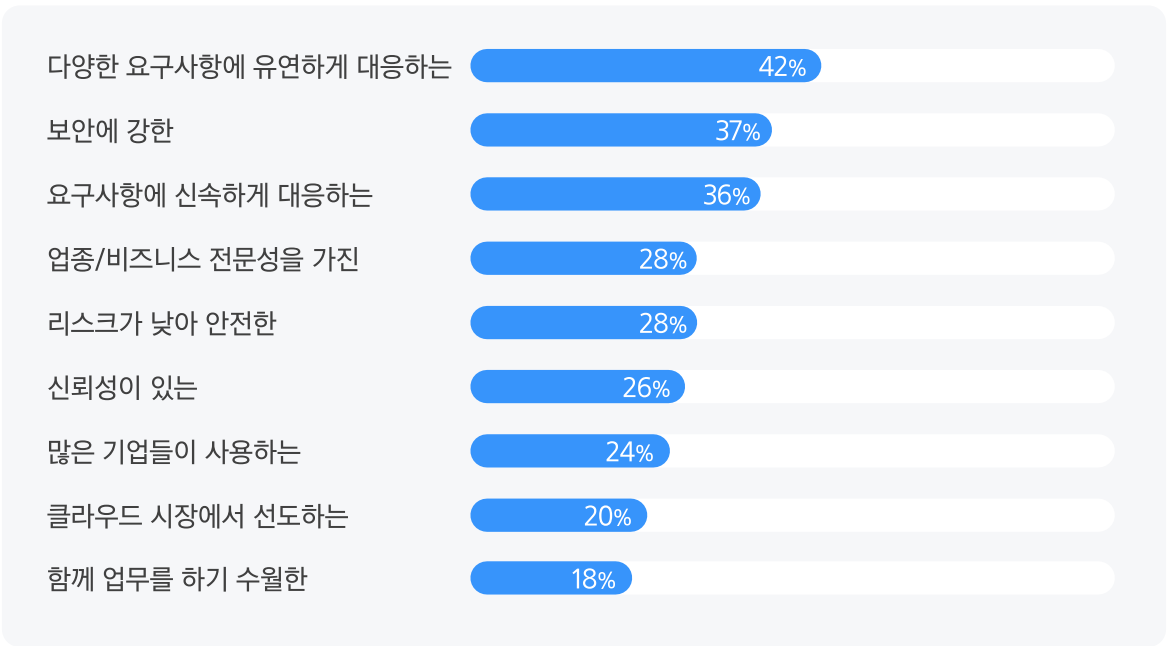
	제조	금융	리테일	서비스
1	비용 효율성	비용 효율성	비용 효율성	비용 효율성
2	강력한 데이터 보안 체계	강력한 데이터 보안 체계	강력한 데이터 보안 체계	강력한 데이터 보안 체계
3	빠른 복구 대응력	법적 안정성	빠른 복구 대응력	안정적인 네트워크 성능

기업들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할 때, 기능과 가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업체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입니다. 신뢰감 있고, 고객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강력한 보안 역량을 갖춘 클라우드 업체일수록 더 높은 선호를 받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42%는 ‘다양한 요구사항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이미지’, 37%는 ‘보안에 강한 업체’, 36%는 ‘요구사항에 신속히 대응하는 전문 업체’라는 인상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답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금융권에서 특히 ‘업종/비즈니스 전문성을 가진 업체’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각 산업군은 고유의 니즈와 리스크 환경에 따라 퍼블릭 클라우드 제공업체에 요구하는 감성적 이미지가 다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잘하느냐’와 함께 ‘어떻게 보이느냐’ 역시 클라우드 기업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 선정 시 중요 브랜드 이미지



(산업별) Top 3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 선정 시 중요 브랜드 이미지

	제조	금융	리테일	서비스
1	다양한 요구사항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보안에 강한	다양한 요구사항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다양한 요구사항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2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3	보안에 강한	업종/비즈니스 전문성을 가진	보안에 강한	보안에 강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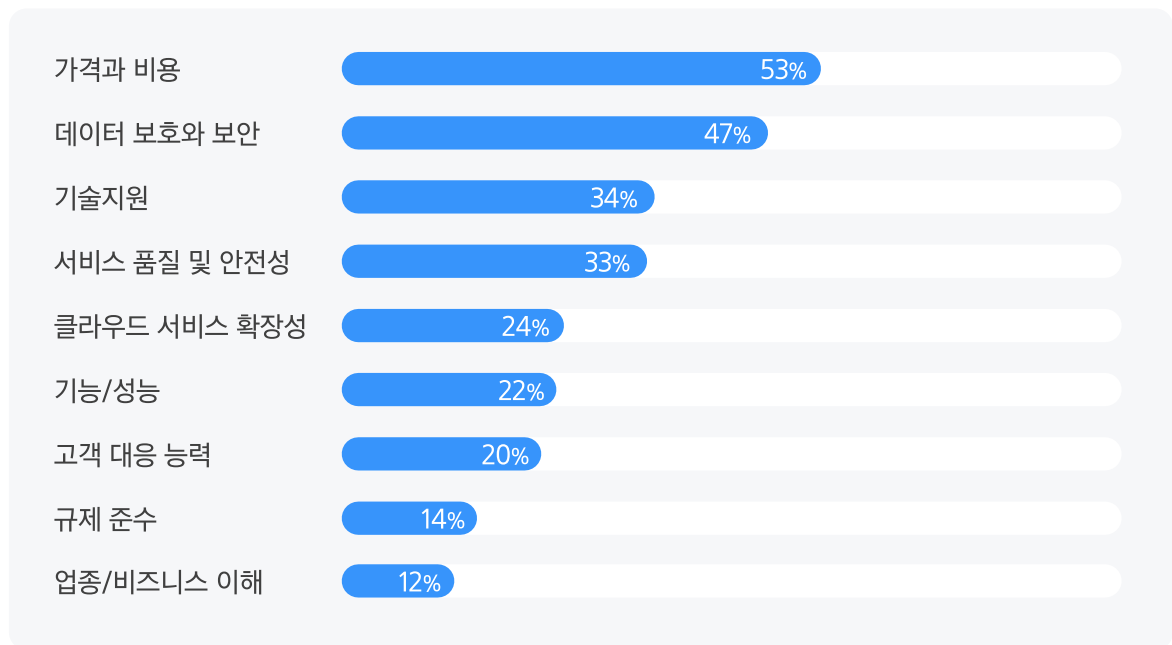
퍼블릭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응답자들은 ‘가격과 비용(53%)’과 ‘데이터 보호와 보안(47%)’은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았습니다. 특히 가격과 보안은 기능이나 성능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우려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기술지원 부족(34%)’, ‘서비스 품질 및 안정성(33%)’, ‘클라우드 서비스 확장성에 대한 우려(24%)’ 등이 주요 우려 요소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아직 클라우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들에게는 아직 클라우드를 도입하지 않은 사유를 물었을 때도 가장 많은 응답이 ‘외부 저장에 대한 보안 우려(44%)’와 ‘비용 부담(38%)’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보안과 비용 외에도 의사결정 구조의 불확실성, 기술 준비 미비, 내부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이유로 클라우드 전환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클라우드 도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 채택보다 기업 내 우려와 걸림돌들이 먼저 해소되어야 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 선정 시 우려사항



In Closing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퍼블릭 클라우드는 이미 많은 기업에 ‘도입 여부’의 문제가 아닌 ‘어떻게 자사 비즈니스 목적에 맞게 활용할 것인가’의 전략 과제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멀티 클라우드는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최적화와 확장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선택하고 도입을 망설이는 기준 또한 기능이나 가격 뿐만 아니라, 보안, 조직 내 의사결정 구조,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성 등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좌우되고 있었습니다.

이 리포트는 기업들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를 바라보는 ‘기능적 관점(functional)’과 ‘이미지적 관점(emotive)’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향후 기업에서 실제로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진행 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SDS는 산업별 요구와 기업에서의 클라우드 도입 여정에 맞춘 전략 수립부터 구축, 운영, 최적화까지 전주기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비즈니스 특성과 의사결정 구조를 깊이 이해하는 기술 파트너로서, 단순한 인프라 공급을 넘어 전환 여정의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삼성SDS는 검증된 보안 인증, 비용 최적화, 멀티 클라우드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통해 디지털 역량을 실질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도입을 고민 중이라면, 지금이 전략적 전환을 시작할 적기입니다.



SAMSUNG SDS